

# 판재시장

외산·국산  
시장 다툼  
점입가경  
·중국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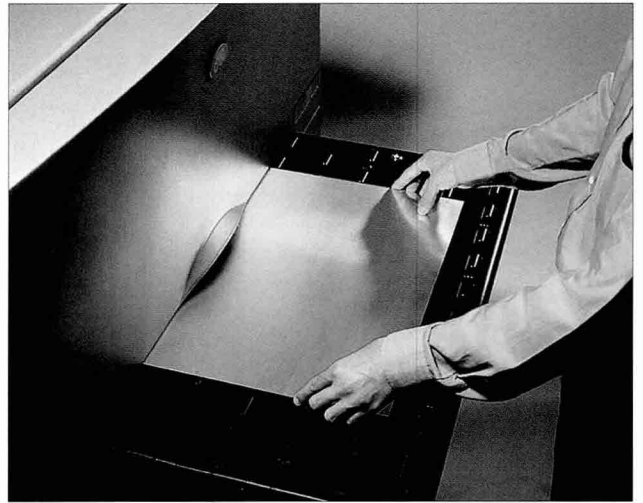
인쇄용 판재는 크게 PS판과 CTP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PS판은 아날로그 판재라고 부르는데, CTP판은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디지털 판재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PS판재의 시장이 절대적으로 크며 CTP판재는 CTP의 보급과 함께 성장하는 단계다. 이러한 판재를 편의상 생산하는 나라별로 외산, 국산, 중국산 판재로 구분하기도 한다.

## 고품질 외산 · 친밀도 국산 틈바구니 속 중국산 증가 추세

외산 판재는 인쇄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이 국내 시장에 보급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그파, 코닥, 후지필름의 판재를 들 수 있다. 생산 역사가 오래되고 기술개발의 수준도 높기 때문에 고품질, 고가격의 판재로 불린다. 국산 판재는 국내 기업들에 의해 생산되는 것으로 품질 면에서는 외산 판재에 비해 조금 떨어지지만 고객과의 높은 친밀도와 상대적으로 우월한 가격 경쟁력으로써 보급망을 형성하고 있다. 국산 판재 업체는 세일피에스, 정도케미컬, 현대산업, 삼성PS, 제일PS, 금성PS, 진켄 등 매우 다양하다. 국산판재는 일반적으로 신판, 임대판, 재생판 등의 형태로 보급된다. 재생판은 한번 사용된 제품을 수거, 재처리한 후 다시 사용하는 판으로 고급의 인쇄품질을 요구하지 않는 작업에 활용된다. 신판과 임대판은 모두 재생판 개념에 반대되는 신판이다. 다만 공급업체가 사용한 판재를 수거해 간다는 점을 강조해 임대판이라고 특징짓기 때문에 신판과 임대판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외산과 국산이 중심이던 판재 시장에 몇 년 전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판재가 가격경쟁력과 함께 품질 면에서도 지속적인 향상을 이끌어내며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화광, 크리마, 코니카, 디탑 등을 들 수 있는데 브랜드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선두주자는 화광이다. 특히 지난 7월에 설립된 에이아이피인터내셔널이 마이크로큐닉스, 화성토탈과 손잡고 전국 총 12개의 유통망을 확보하며 중국 화강판의 보급을 정식으로 선언, 중국산 판재 시장은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 외산 롤타입 · 국산 시트 타입으로 가공

판재는 알루미늄을 주원료로 하는데, 외산은 주로 롤 타입으로 가공한다. 롤 타입으로 가공하는 것은 판재의 품질 및 성능을 균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롤상 판재 설비를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넓고 긴 공장라인을 확보해야 하며 적합한 설비를 갖춰야 한다. 이런 이유에서 국산 판의 경우, 몇몇 제품을 제외하고는 시트 타입으로 가공하는데 이는 각 판재의 균일한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따를 수 있다. 물론 국산 판재도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을 통해 이미 일정정도의 수준에 올라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도케



미컬과 제일PS 등을 필두로 몇몇 국산 판재업체도 롤타입의 판재 생산을 시도하고 있다. 다만 시트 타입과 롤 타입의 가공은 방법적인 면에 차이가 있어,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설비와 적용 시간이 필요하다.

## 환경친화 써멀 무현상 판재 개발

차세대 판재로 부각되는 CTP판도 외산, 국산, 중국산이 보급된다. 외산 CTP판재는 크게 실버, 포토폴리머, 써멀 방식으로 나누는데 실버와 포토폴리머는 바이올렛 판재로 볼 수 있다. 400nm의 자외선 단파 광원으로 감광되며 대부분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작된다. 운전 업체나 신문사 등이 주요 수요처다. 써멀 방식의 판재는 비교적 장파인 830nm의 적외선 광원으로 감광, 처리된다. 써멀 판재는 주로 전통적인 방식이 사용되지만 최근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현상 과정을 생략한 무처리 방식의 판재가 개발, 보급되고 있다. 대부분이 포지티브 판재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네거티브 판재도 생산된다.

외산 판재 보급업체 중 아그파가 실버, 포토폴리머, 써멀 판재를 모두 생산하고 있으며 코닥은 써멀 판재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후지필름은 포토폴리머 판재가 유명하다. 무처리 판재도 아그파의 아주라, 아미고 등이 이미 상용화돼 전세계적으로 보급되고 있으며 코닥과 후지필름도 개발을 완료해 놓은 상태다. 다만 국산 판재의 기술수준이 지속 업그레이드되는 등 신기술이 지속 개발됨에 따라 외산 판재도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

## 국산 CTP판재 출시로 외산 가격 인하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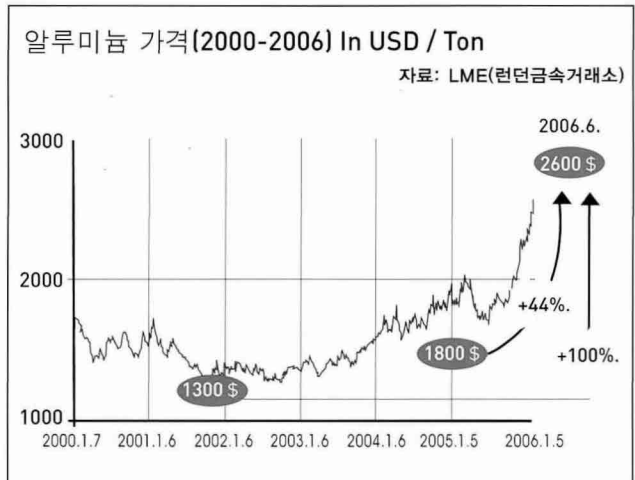
국산 판재는 전반적으로 인쇄품질의 향상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재생판의 판매량은 줄어드는 반면에 신판, 그 중에서도 임대판의 판매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외산 판재가 수거에 따른 인건비, 보관비 등의 높은 부대비용에 비해 떨어지는 효율성으로 사용한 판재를 수거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국산 판재 업체들은 임대판 정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고정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CTP 판재가 생산되고 있다. 진캠이 써멀 CTP 판재를 개발, 2005년에 본격적으로 CTP판재 시장에 진출했으며 세일피에스도 다라니 제2공장을 인수하며 다라니라는 브랜드명으로 2005년부터 CTP판재를 보급하고 있다. 세일피에스는 기존의 PS판은 세일이라는 브랜드로 공급한다. 또한 국산 CTP판재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외산 제품의 품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이지만 유통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외산 CTP 판재의 가격을 인하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 중국산 판재 물량 지속 확대 될 듯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국내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한 중국산 판재의 PS판 시장 잠식률은 점차 확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국내에서 판재를 제작하던 업체들이 중국에 공장을 설립, 생산한 판재를 역수입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러한 중국산 판재의 시장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볼 때는 중국산 CTP판의 수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든 외산, 국산, 중국산 판재의 국내 시장 쟁탈전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판재가격 인상

판재 시장의 또 하나의 흐름은 가격 인상이다. 지난 3~4년간 계속된 원유가격 폭등은 각종 부자재의 원가상승을 부채질 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원자재인 알루미늄은 영국의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거래가격이 2006년 1월에 톤당 2600달러를 기록해 1300달러에 그쳤던 2002년 1월 대비 정확히 두 배 올랐다. 이런 대외적인 원가상승 요인으로 지난 상반기, 아그파가 선두에 서서 판재 가격을 평균 15% 인상했다. 이런 가



격 인상 조치는 업계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일단 아그파가 소모품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도 잇따라 인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다른 제품 가격이 인상되기 전까지는 아그파 제품이 아닌, 타회사 제품을 사용하겠다는 전략적 행동을 취한 업체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사업자의 측면에서 보면, 결코 비난받을 만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대응이었다. 한편, 판재 가격 인상은 불가피한 조치로 받아들여지는 측면이 있다. 원가상승요인이 워낙 컸기 때문이다. 이에 후지필름도 8월 1일부로, PS판재의 국내공급가격을 7% 인상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지만 현장 반응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양 업계 윈-윈 방법 모색 필요

인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높은 인쇄품질을 위해 함께 발전해야 하는 판재. 현재 인쇄업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이 겪고 있기 때문에 중요 부자재인 판재시장의 동향 하나하나도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판재시장은 이미 중국산의 저돌적인 진출로 춘추전국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그러나 판재가 가격에 의해 모든 것이 평가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품질 및 서비스와 함께 판단이 이뤄지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어려운 때일수록 판재업계와 인쇄업계 모두 윈-윈할 수 있도록 서로 발전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